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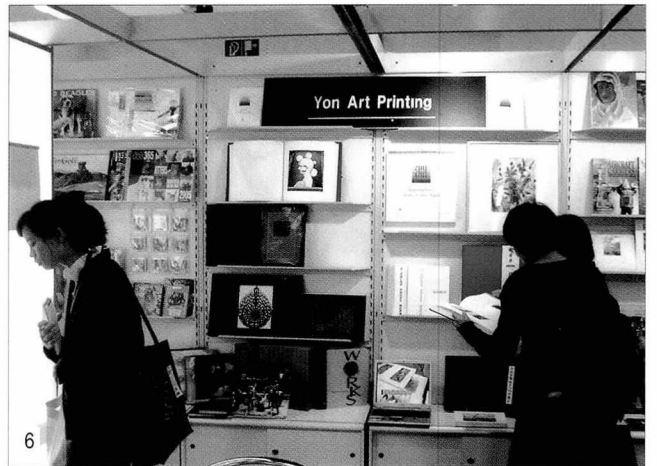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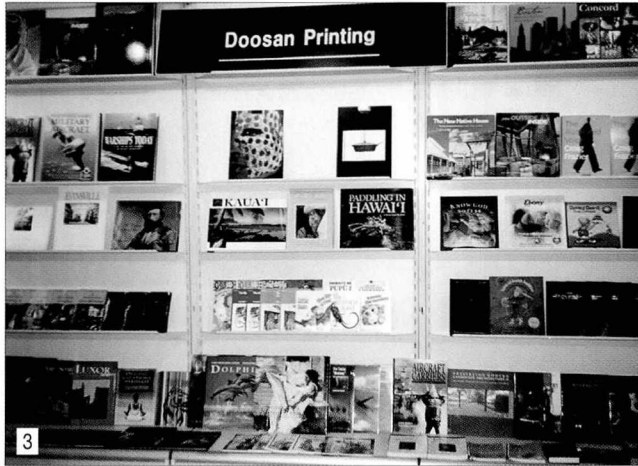
## 인협, 한국인쇄관 꾸며 호평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제56회를 맞아 세계 110개국 6691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장(Messe Frankfurt)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이정일) 주관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13개 직접 참가업체, 34개 위탁전시업체들이 총 1210종 2080책을 전시했으며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적극 홍보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도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쇄관을 마련해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가하였으며 이 외 20여개 업체도 카탈로그 등을 통해 간접 출품했다.

뿐만 아니라 인협은 고인쇄체험관을 설치, 인쇄중주국의 위상을 한껏 과시했다.

출판업자·일러스트레이터·서적상 등 총 27만명 관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15세기 초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 직후부터 인쇄업자와 작가들이 참여하면서 '부흐메세'란 이름으로 1564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된 뒤 1949년부터 독일 출판업자와 서적업자들이 모여 이 도서전을 재개하였다. 올해로 56회를 맞은 세계 최대의 국제 도서전으로 독일 정부와 언론은 물론, 출판업계를 비롯한 모든 관련 문화산업이 이 메세를 출판과 문화의 '자유정신'과 '문화 진흥'을 위한 최대의 호기로 활용하고 있다. 아랍국가연합이 주빈국가로 참여한 가운데 △현대 아랍 대표작가와 시인 사진전 △아랍 대표작가와 시인 번역신간 전시회 △주빈국 '아랍세계' 갈라 콘서트 △정보화시대 아랍문화전 △아랍세계의 책 △아랍세계의 북아트전 △아랍세계의 언론의 자유(기자회



1.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설치한 한국인쇄관 모습 2. 한국고인쇄체험관에서 외국인들이 탁본을 한 후 환하게 웃고 있다 3. 한국인쇄관내 두산인쇄 전시부스 모습 4. 한국인쇄관내 대한교과서 전시부스 모습 5. 한국인쇄관내 청야문화사 전시부스 모습 6. 한국인쇄관내 연미술 전시부스 모습

견) 등의 행사가 치러진 이번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는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출판업자, 서적상, 일러스트레이터, 에이전트와 80여개 국가에서 1만2천명 이상의 취재기자들을 포함한 약 27만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협, 2005년 주빈국 홍보 인협, 인쇄종주국 위상 제고 출협은 한국관에서 '한국출판문화역사전', '책을 통해 본 한국문화전', '한국의 명시전' 등의 기획전시회를 개최했으며 이 외에도 북아트 작품 전시코너, 전시출판코너를 마련함으로써 2005년 6월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서울세계북아트전'을 홍보하고 국내 전자출판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홍보관을 설치, 방문객들에게 한국의 2005년 도서전

주빈국 참가를 널리 알렸다.

인협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72㎡규모의 한국인쇄관을 꾸며 대한교과서(주), (주)두산인쇄, (주)연미술, 청야문화사, 홍일문화인쇄(주) 5개 참가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정부지원 7천만원, 인쇄업계 부담금 7천만원 등 총 1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한국관 설치에 인협은 전시부스 사용료와 시설을 지원하고 고인쇄 시연행사 및 고인쇄관련 영상물을 상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참여업체 인쇄물 및 홍보 카탈로그를 비롯해 국내 인쇄를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홍보용 책자 및 기타 한국의 인쇄 및 회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용 책자 등을 배포, 관심을 증폭시켰다.

〈조갑준 차장〉